

인사

· 새해 첫날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선한열매가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

· 올 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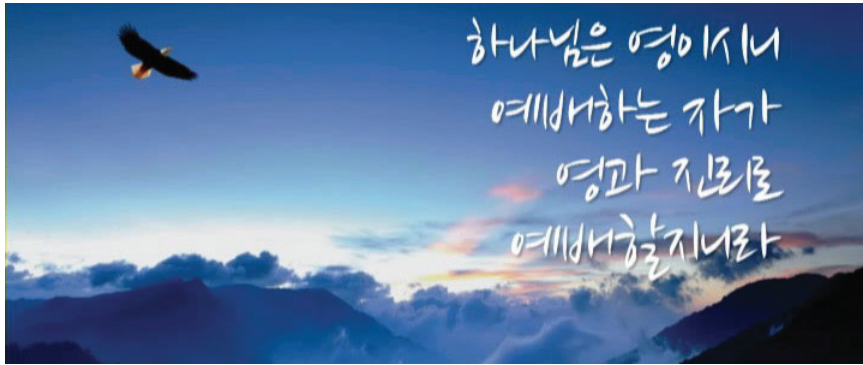
· 2016년 교회 표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록해지는 성도, 심령이 부흥하는 성도, 이웃과 나눔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력

· 2016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벽걸이용, 탁상용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감사헌금

· 성탄축하 감사예배에서 성탄감사헌금으로 \$1413이 집계되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구제헌금으로 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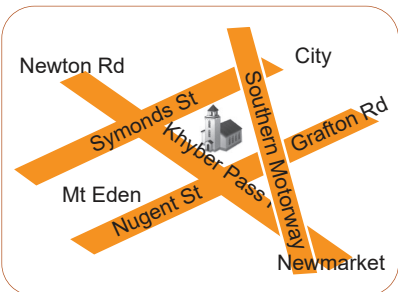


2015년 12월 31일 11PM

# 송구영신 예배



■ 찾아 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 태 한
- 부 목 사: 심 창 진
- 부 목 사: 이 성 철

■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찬	양	갈보리 찬양단	찬양대 찬양	오늘까지 복과 은혜/나무십자가 찬양대
예배로 부름		에베소서 4:22-23, 이사야 60:1	설	교
※ 찬	송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이태한목사	
※ 성 시 교 독		94. 새해(2)	찬	송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신 앙 행 전		이현재, 문지영 성도	헌	금 기 도
대 표 기 도		박일영 장로	인도자	
성 찬 식		집례자	올해	내게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29:11	주시는 말씀	
			교 회 소 식	인도자
			새 해 인 사	다함께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성탄 전야제 후기 - 성탄은 자랑 되어져야 합니다

2015년의 성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 해에도 성탄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상해져 아직도 성탄 전야제를 하면 촌티나는 신앙으로, 성탄 Tree를 장식하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글씨로 강단을 장식하는 것은 시골스러운 믿음으로, 반면 캐럴송이 흘러나오는 커피숍 스피커에 귀 기울이며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플랫 화이트를 맞보는 것은 고상하고 우아한 신앙의 성탄 맞이가 되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탄 전야제를 통해 형식이나 마지 못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구주탄생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23일 날 낮 1시 아직 전야제가 만나절이나 남은 시각인데 강단 장식 위한 갖은 아이디어와 준비한 소품을 들고 오신 세분에 의해 어느덧 강단은 유대땅 베들레헴이 되었고 전야제는 시작 되었습니다.

일흔이 넘으신 장로님이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한 구절의 요절도 쉽게 암송하지 못해 찢찢매매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동부의 성극은 그야말로 전야제를 전야제답게 승화시킨 또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아기예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며 복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걸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만 자란다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저들은 복음으로 신앙을 지켜 가리라는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의 나이에든 하프를 연주하는 섬섬옥수의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에 이어 위십체조를 선보인 식구들은 아직 몸놀림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새벽이슬같은 청년들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으며 청춘 그 자체인 신혼부부들의 풀카는 한쌍의 백조들이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나무십자가 찬양대의 축하 찬양에 이어 할아버지들의 엔딩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성탄하실 아기 예수는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언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함도, 남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어설피고 초라한 전야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내년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전야제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자랑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잡고 있다면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색채를 띠는 것은 테러집단 IS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빌미로 예수,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와 관련된 단어들을 최소화 내지는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주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이제는 ‘해피 할라데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월로우 크릭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안 드린지 벌써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제(30일)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들과 통화를 하는데 한국도 성탄 새벽송이 없어진지 오래 전이라고 합니다.

추운 손을 호호 불며 십리 길을 마다 앓고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렸던 새벽송이 이제는 향수로만 남았습니다. 또 차마 입에 올리기 낫 뜨거워 이 거룩한 예배 순서지에 기록해야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일년 중 성탄절에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호텔, 모텔 방이 모조리 동이 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기분 나빠하기 보다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도 없이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시끄럽고 저질스러운 문화를 이제 우리가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자들이 왜 성탄절이라고 못된 짓을 하나,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잔치날인데 왜 휴일로 알고 야단인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잔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도전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크리스마스 문화, 그 빼앗긴 문화를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7년전 성탄 전야제를 할 때 교회학교와 선교회에 ‘흰눈 사이로,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울며 안돼’같은 노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날인데 주인공은 없고 사슴이나 산타클로스가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은 성탄절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를 노래가 없고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 좀 풀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자녀들이 오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본다면 내년 성탄절에는 새벽송을 돌며 예수님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날입니다. -이태한목사